

지역 매아리

정읍시, 부정축산물 단속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설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와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축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관내 374개업체인데,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포함하여 6명의 합동점검반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세트 상품의 표시기종 및 유통기한 위반, 식용란 난각 표시 준수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조치, 제품압류, 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사람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하여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o 축산 정정 정읍을 지향하는 정읍시에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연중 8회 이상 부정축산물 일제 단속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맞춤형 지방세정

'찾아가는 멘토링제' 운영

지방세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고창군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을 찾아 지방세 납부를 도와주는 '지방세 멘토링제'가 본격 운영된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를 2월부터 추진 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산업단지외 농공단지 등 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무 인식 부족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갠 면 단서조항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방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세공무원들을 멘토로 지정한 지방세 상담반(4개반 8명)을 운영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실정에 맞는 지방세무 정보 제공과 기업운영의 각종 고충사항을 듣고, 연관 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고창군은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국제상담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함께 잘사는 고창 실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본격 추진... 4년간 1284억 투자·일자리 1만 4천개 창출

민선 7기 고창군이 '농생명문화 살려 함께 잘사는 고창'을 비전으로 향후 4년간 1284억원을 투자할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17일 '고창군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2019~2022년)'을 발표하고, 현재 71%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4년 뒤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창군 일자리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 별로는 ▲농생명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 농생명산업 육성지원 기반조성,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관광 상품화 개발, 농식품 생명산업 산업단지 집중 기업유치 등 679명의 편성은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 명품 관광 기반조성, 농촌형 MICE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체험형 레포츠 기반 스포츠 관광 활

성화 등 999명의 연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중간조직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 등 272명 연관 일자리 창출 ▲시대를 앞서가는 고창형 창업생태계 활성화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808명 일자리 창출 ▲함께가는 공공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확대 - 공공근로·공공산림가꾸기,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상담, 특성화고 명장육성 등 1만 2070명 공공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284억 원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1만4000여개를 창출하고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현재(지난해 말 기준) 71.2%대의 고용률을 73%대까지 높이고, 특히 청년고용률을

33.5%, 여성고용률을 65%까지 끌어올려 함께 잘사는 고창을 실현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시된 사업들을 전라북도와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 내 고용관련 각종 협의체와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민선 7기 일자리종합계획은 고창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고용정책이 담긴 만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검토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잘사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에 '앞장'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방향과 주요사업 소개하는 사업설명회 가져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신철, 이하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7일 정읍지역 장애인 및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방향과 2019년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장애인복지관 비전을 위해 추진 중인 83개의 다양한 사업안내와 올해 개설되는 신규 사업 설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신철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복지관 주요현황과 추진방안 안내, 운영현황 안내, 팀별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정보화교육 모바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 평생교육다과반(캘리그래피), 집단기 놀이치료, 나비골프 등 16개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며 정보화교육 모바일반과 장애인 가정의 실생활에 맞게 개선해 주는 주거 개선사업에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오늘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장애인복지관이 더욱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7일 정읍지역 장애인 및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읍지역 1만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따뜻한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 구입하세요"

정읍시 정보화마을, 29일까지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판매

정읍시 정보화마을(이하 정보화마을)에서는 이달 29일까지 설 선물 특별행사를 실시한다.

설 명절 선물로 알맞은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 20여종을 시중가격보다 5~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내장산정보화마을에서는 복분자즙(100ml, 30개)과 귀리유과(선물용 한과, 600g)등을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옥정호정보화마을은 황토대추, 산내토종머시곶감, 꿀을 8~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상품 구매는 정보화마을 인빌쇼핑몰(www.invil.com)과 마을별 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보화마을은 온라인 특판 행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에 참여한다.

전북 도내 18개 정보화마을이 참여하는 장터에 정읍의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접 만나 판매와 홍보를 하며 당일 현장에서 택배 주문도 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근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특별한 행사가 정읍의 우수한 농산물과 정보화마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말하며 아울러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읍시 정보화마을 상품세트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생동하는 부안 옛보는 3UP 행정 알려

지난 18일 계획면은 2019년 연초방문 행사인 '부안군수와 함께하는 계획면이야기' 행사를 200여 계획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김창조 계획면장의 2019년 면정 주요 업무보고로 포문을 열어 참석 내빈과 계획면민들에게 보고했으며, '마을활력 플러스 이야기'에서는 청년 농업인 정화진씨가 이동식 감자하우스 설치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소득UP, 행복UP, 사람UP' 3UP 비전과 2019년 6대 추진전략에 대해 군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군민과 '이칭특심' 생동대화를 나눠면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민생탐방 현장으로 이동해 이동식 감자 재배하우스와 라이프곡물 가공센터를 직접 방문해 뜻깊은 이야



기를 나누고, 대별경로당을 마지막으로 2019년 계획면 연초방문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김창조 계획면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9년 더 높은 소득, 더 큰 행복,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 계획면민과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공무원 대상 인구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부안군은 지난 18일 변산면 대명리 조트에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략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인구정책 등에 관한 특강과 분야별 인구대응 정책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실시된 특강에서는 ▲국정과정 및 민선 7기 주요 정책 ▲정부 4대 혁신과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핵심 ▲인구대응정책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저출산, 복지, 농어촌, 일자리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세워보는 등의 실질적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무관련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직면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어 "이번 토론에서 제안된 역할과 핵심 ▲인구대응정책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different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es the phone number 'TEL : 063-584-9960' and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